

# 광양여고, 놀라운 '명문' 변신

## 학생·교사·학부모 힘 합쳐 면학분위기 조성

### 우수학교 지정...올 졸업생 63% 4년제 진학

광양여고(교장 한문수)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이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명문고로 도약하고 있다.

광양여고는 올해 졸업생 271명 가운데 서울대 2명, 수도권 대학 18명, 그밖의 지역에 152명 등 모두 172명의 4년제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의 경우 졸업생 267명 중 23명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4년제 대학에 169명이 진학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대학진학률이 매년 5명 안팎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광양여고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7년 한문

수 교장 취임과 함께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힘을 합쳐 학교 교육에 대한 생각과 생활패턴을 바꾸면서 시작했다.

한 교장은 부인 조 학부 모 회의를 자주 가져 학교와 학생들의 현황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했고, 학생들과는 개별면담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읽어나갔다. 또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생활까지 철저히 관리해 수업에만 열정을 쏟도록 주문했다.

한 교장의 체계적인 교육방침은 시행 1년여 만에 빛을 보기 시작해 학생·교사·학부모간에 '하면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광양시가 추진해온 방과후 우수학습반 운영, 우수학생 심화보충수업, 우수학생 기숙사생활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은 큰 도움이 됐다. 학력이 신장되면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남대회 은상, 전남도교육청 주관 수학경시대회 은상, 외국어 표현력경시대회 금상, 전국 인터넷 활용교육 우수학교 선정, 축구부 전국대회 두 차례 4강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학부모 김모(광양읍·49)씨는 "학교와 지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교육환경을 개선, 광양여고가 명문고 반열에 올랐다"면서 "3년 전에는 우수학교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되레 타지역 학생들이 전학오기 시작해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웃었다.

한문수 교장은 "학생들의 성적을 매월 분석하고 데이터로 만들어 진학지도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숙사 시설이 오래되고 인조 잔디구장이 없어 조금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보성 '강하주' 녹차보다 유명해지겠네

## 제조 기능 보유자 도화자씨 전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보성녹차 생산지로 유명한 보성군 회천면 지역에 전통 민속주인 '보성 강하주'가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강하주'가 토속적 독창성과 전통주로서의 과학성 등을 인정받아 무형문화재에 지정·고시됐다. 지정내용은 전승자인 보성군 회천면 읍포리 145번지와 기능보유자 도화자(60·사진)씨, 보유기능은 강하주 제조 등이다.

밀과 보리·멥쌀·참쌀 등으로 빚는 '강하주'는 보성군 회천면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돼온 전통주로 향과 맛이 진하고 숙취가 없으며 마실 때 부드럽고 뒷맛이 개운하다. 특히 보리를 사용해 증류주를 만드는 전라도 지역의 특징적인 기법을 간직하고 있어 보성군과 지역민이 전



통주 맥 잇기 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원형복원에 노력해 성공했다.

3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강하주를 전승하고 있는 도씨는 16세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양조기법을 배워 보성군의 '강하주 맥 잇기' 사업 기능보유자로 추천된 이후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 끝에 제조방법 정립

에 성공해 이를 전수하고 있다.

도씨는 2002년 곡산단 주최 아름다운 우리 술 찾기 공모전에 입선하고 2004년 배상면주류연구소 주최 제1회 우곡 전통주 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했으며 농림부의 추천을 받아 주류면허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나로호 발사 관람지점 '여수해상' 최적 "항만시설에도 면세유 지원해 달라"

## 여수시 분석

오는 30일 국내 최초로 발사될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장면을 국민들이 해군 독도함에 승함,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산과 함께 관람하려면 화양면 원포 봉화산과 화정면 백야도 백호산, 섬은 남면 금오도 대부산과 화정면 개도 봉화산 정상이 부 포인트로 적당하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상이 뷰포인트로 가장 적당하다는 여수시 관계자의 분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장면을 국민들이 해군 독도함에 승함,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산과 함께 관람하려면 화양면 원포 봉화산과 화정면 백야도 백호산, 섬은 남면 금오도 대부산과 화정면 개도 봉화산 정상이 부 포인트로 적당하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 순천광양상의 정부에 건의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12일 항만 시설 장비도 면세유와 유류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 당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순천광양상의는 건의문에서 "항만 시설 장비는 특성상 고종량물인 컨테이너의 상·하차와 저속운행 등으로 다른 장비보다 유류비가 많이 들지만 현 관련법상 유류보조금이나 면세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항만시설 장비도 유류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순천광양상의는 "현재 광양항의 항만시설 장비는 146대에 연간 유류 소모량이 5천920ℓ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대상에 포함하면 19억9천여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 면세유를 공급받으면 유류비 절감 효과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고흥 남계리 일대 녹지 우거진 명품도시 만든다

## 14만여㎡ 555억 투입

고흥군 남계리 일대가 새로운 도심으로 개발, 조성된다.

고흥군은 12일 고흥읍 남계리와 등암리 일대 14만여㎡에 555억원을 들여 고품격 명품도시를 조성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계지구에는 군청사 등 공공기관과 800여 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새로운 도심으로 개발된다.

공동주택은 평균 용적률 200%, 15층 이하로 건설되며 하천과 공원, 녹지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는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된다.

교통 영향평가와 세부 실시계획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2012년 준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순번	부동산명	매각처	매각일	참고사항
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법원	2009. 07. 15	...
2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3	경기도 수원시...	법원	2009. 07. 15	...
4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5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6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7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8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9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0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1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2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3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4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5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6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7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8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19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20	경기도 성남시...	법원	2009. 07. 15	...

광주지방법원 성남지원 · 시법보통관 박정석